

## 일본 수출규제/한일 관계 동향(2020.6.27.~2020.7.3)

### 1. WTO 제소 관련

- 일본 정부는 6월 29일 WTO 협의에서 한국 정부의 패널 설치 요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sup>1)</sup>
  - 한국 정부는 6월 18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WTO에 정식 제소함.
  - 6월 29일 WTO 회원국들은 패널 설치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함.
  - 일본 측은 ① 수출규제는 WTO 회원국들에게 인정된 예외 조항(군사 전용이 되는 것을 방지)에 해당되는 장치라는 점, ② 용도가 민간용임이 확인된 수출 건은 허가하고 있다는 점, ③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패널 설치에 반대함.
  - 이에 따라 6월 29일 회의에서 패널 설치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다만 WTO 규정상 다음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다시 패널 설치를 요구하고, 회원국 모두가 반대하지 않는 한 패널이 설치될 전망
  - NHK는 7월 회의에서 패널 설치가 인정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한일 양국 대립은 국제기구에서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함.
- 일본 측은 대화로 현안을 해결해야 하며, 이번 수출규제는 WTO 협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견지중이나 WTO 제소로 양국 간 신뢰관계는 손상을 입었다는 입장<sup>2)</sup>
  -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일본은 대화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게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WTO 절차를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 고 하였으며, “수출규제는 WTO 협정과 정합되는 것으로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1) 「日本の対韓輸出管理 WTO 来月小委員会設置の見通し」, 「NHK NEWS WEB」, (2020. 6. 30)

2) 経済産業省, 「梶山経済産業大臣の定例記者会見の概要」.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speeches/kaiken/2020/20200630001.html>  
(검색일: 2020. 6. 30). 및 「輸出管理強化1年 日本政府は対話を重視 韓国政府は撤回求める」, (2020. 7. 1). 및 検証: 半導体材料3品目、対韓輸出規制1年」, 「毎日新聞」, (2020. 7. 2).

아니다” 고 주장함.

- 한편 마이니치 신문(2020. 7. 2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지속할 방침이며, 한국이 협의(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중단하고 WTO에 제소할 것을 두고 “신뢰관계를 손상시켰다” 는 비판을 강화하고 있으며 양보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 2.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조사 관련

□ 일본 정부는 6월 29일 한국산 탄산칼륨의 반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sup>3)</sup>

- 일본 경제산업성 및 재무성은 6월 29일 “신청자가 재무장관에게 제출한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과세신청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근거한 검토를 실시한 결과 반덤핑 관세의 과세 부과를 할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2개 기관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 탄산칼륨 : 백색 분말로서, 주로 액정 패널 등 유리의 원료로 사용

- 신청자(염화칼륨의 전해사업을 실시하는 기업이 가입한 업계 단체)는 한국의 탄산칼륨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해 보면,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다고 주장함.<sup>4)</sup>

- 반덤핑 조사 신청자는 덤핑 마진률\*이 약 10~40%에 이른다고 주장

\* 덤핑 마진율 :  $((\text{정상가격} - \text{수출가격}) / \text{수출가격}) \times 100$

- 또한 신청자는 “한국산 탄산칼륨의 수입량은 4,918톤(2017년)→5,293톤(2019년)으로 증가하여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산 탄산칼륨의 일본 판매가는 일본산 제품의 판매가격을 계속 낮춰 일본 내 관련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며 과세 부과를 요청함.

□ 한편 일본 정부 측은 이번 조사가 수출규제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sup>5)</sup>

3) 経済産業省(2020. 6. 29), 「大韓民国産炭酸カリウムに対する不当廉売関税の課税に関する調査を開始します」, (2020. 6. 29).

4) 経済産業省(2020. 6. 29), 「申請書の概要」.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press/2020/06/20200629001/20200629001-1.pdf> (검색일: 2020. 7. 2).

5) 「韓国製化学品、不当廉売の疑い、財務省など調査開始。」, 「日本経済新聞」, (2020. 6. 30).

### 3. 수출 규제가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sup>6)</sup>

- 일본의 한 언론 매체는 수출규제로 인해 관련업계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
  - 마이니치(毎日) 신문은 개별허가제 대상으로 지정된 3개 소재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를 수출하는 모리타화학, 스텔라케미파 등이 정부의 수출허가 절차의 장기화로 인해 대한국 수출이 감소하여 영업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함.
  - 모리타화학은 수출규제 이전에는 수출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1주일 정도였는데, 규제 이후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되어 수출이 계속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동 사의 대한국 수출은 약 1/3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스텔라케미파도 한국 수출 저하로 영업이익이 18.2% 감소함.

---

6) 각주 2의 마이니치 신문